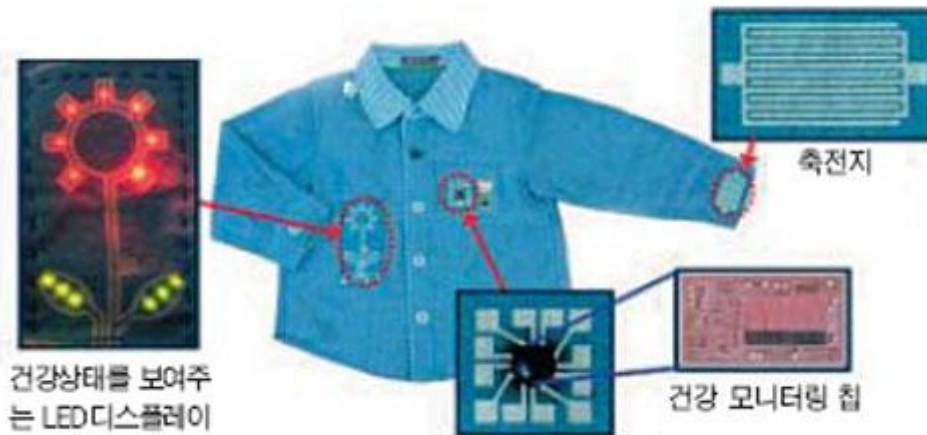


청진기 옷? 입기만 하면 건강 체크되네!

-KAIST 연구팀, 직물 장착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



입기만 하면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'청진기 옷'이 개발됐다.

카이스트(KAIST) 전자전산학과 유희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08년 국제반도체회로학술회의에서 직물 장착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연구팀은 옷감으로 사용하는 직물 위에 전자회로를 구성하고, 그 속에 체온과 땀의 변화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건강모니터링 칩을 붙였다. 전자회로는 작고 가벼워 눈에 띄지 않고, 유연하여 입고 있을 때 불편한 느낌이 거의 없다. 센서를 바꾸면 맥박 등 다른 생체신호도 측정할 수 있다.

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옷을 입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를 원하면 건강모니터링 칩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처리해 옷 바깥쪽에 부착된 발광다이오드(LED)를 통해 보여준다.

/ 김아림 기자 cf1024@chosun.com